



정교회주보

제2525호

2025년 5월 1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 5 주일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디오니시오스 순교자
성 크리스티나 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254
- 복음경 : 요한 4,5~42 100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사진 설명

성 미로 성유

성 미로는 세례받은 이들에게 견진성사를 통해 발라주는데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날인'이다. 원래 성령의 은사는 세례받은 이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사도 시대부터 입문자가 크게 증가했기에 사도의 안수는 성유를 발라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성 미로의 또 다른 용도로는 성당 축성식에서 성당 내부의 여러 곳에 바르는 의식에서도 사용된다.

성 미로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출애굽 30,22-25)에 근거하여 57가지의 향유, 오일, 허브, 약용 식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이는 사랑, 지혜, 신중함, 기쁨,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선함 등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상징한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약 10년 주기로 성지주일부터 성 대 목요일 사이에 만들어 세계 각지의 교회에 보낸다.

사진은 2022년 4월 21일 성 대 목요일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찬예배와 함께 거행된 성 미로 봉헌식 모습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요한 4,14)라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시는 성 만찬을 오늘날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영혼의 깨끗함을 얻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 사도 바울로께서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1고린토 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제와 결합은 먼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사람의 본성이 주로 영혼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덕과 인간적인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또한 죄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점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양식만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영원히 살아 존재하기에 영적인 양식을 더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이다.”하시며

앞으로 지속해야 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사도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재적인 권한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때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1고린토 11,17-34) 성찬식을 주님 이후부터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구세주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7)

이분이 바로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하여 그 신비를 완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요한 4,24)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 만찬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교를 계속해야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방식에 대한 신뢰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딸이 엄마에게 모든 일이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수학 시험을 망치다시피 잘못 쳤고, 친한 친구는 멀리 이사하게 되었고, 피아노 수업은 실력이 썩 향상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는 등...

그러는 동안 엄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딸에게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딸은 “당근이죠(당연하다는 뜻)! 엄마 케이크를 아주 좋아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럼, 식용유 한 컵 먹어볼래?” 엄마가 말했다.

“음!” 딸이 대답했다.

“날계란 두 개는 어떨까?”

“그냥 먹기엔 좀 그래요.”

“그럼,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좀 먹어볼래?”

“엄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씩 따로따로 먹기엔 좀 거칠고 역겨워요! 날것으로 먹을 순 없어요!”

딸의 이 말에 엄마가 대답했다.

“그래, 맞단다. 이 모든 재료는 각각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맛도 별로 없고, 먹기에 불편하고 이상하지. 하지만 이 재료들 전부를 적절하게 잘 섞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케이크가 된단다.

하느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토록 고약하고 힘든 시간을 거쳐 지나가도록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는지 종종 의문을 품지.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질서 안에 돌지 않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해.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일들이 놀랍도록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단다.”

“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라.”(시편 37,3-4)

주간 예배 안내

* 5월 21일(수)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림

■ 서울 성당 세계 음식 축제

지난 11일(주일)에 열렸던 ‘먼나라 이웃나라 음식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스, 남아공, 러시아, 미국, 벨라루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다채로운 고유 음식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주변 이웃들의 방문과 참여도도 매우 높았는데, 이는 맛있는 음식 및 화창한 봄 날씨와 더불어 축제 성공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전 준비부터 행사 후 정리까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애써준 신데즈모스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춘천 성당 보수작업 시작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계단 보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와 균열로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추후에는 성당과 복지관의 다른 부분도 보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에 개최될 대교구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분별

영성의 샘터

하루는 요셉 사부가 친구인 피민 사부를 만나러 갔다. 피민 사부는 며칠간 선 채로 수행하고, 잠시 발을 물에 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요셉 사부 눈에는 그 모습이 엄격한 수행자의 모습과 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피민 사부에게 물었다.

“일부 수행자들은 그들의 몸을 혹독하게 다뤘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형제여, 우리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죽이는 것을 배웠다네.”라고 ‘분별의 성인’이 말했다.

